

“류현진, 내년 시즌 선발 가능성 높다”



류현진(30)이 내년 시즌 LA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류현진과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한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29)가 불펜 투수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미국 야구스포츠는 18일(한국시간) 다저스가 전날 맺 캠프를 영입하는 대형 트레이드로 브라이스 하퍼 영입에 더 좋은 위치를 점했다고 전하면서 다저스의 내년 시즌과

이후를 전망했다. 다저스는 17일 내야수 애드리안 곤잘레스(35)와 찰리 커버슨(28), 투수 브랜던 매카시(34)와 스콧 카즈미어(33), 현금 450만 달러(약 49억원)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보내고 맷 캠프(33)를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내년 시즌 연봉이 2150만 달러인 곤잘레스와 1200만 달러인 매카시, 1500만 달러인 카즈미어를 정리했다. 현지 언론은 선수

美 야구스포츠, 다저스 내년 시즌·이후 전망
선수단 연봉 총액 줄여 하퍼 영입전 참여 예상
“마에다 불펜 같듯…PS서 좋은 활약 선보여”

단 연봉 총액을 줄이기 위해 트레이드를 한 다저스가 캠프를 트레이드하거나 방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야구스포츠는 선수단 연봉 총액 규모를 줄인 다저스가 2018시즌 이후 자유계약선수(FA)가 되는 하퍼 영입전에 뛰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내년 시즌 다저스 로스터에 대한 예상도 내놴다. 선발 자원이 매카시와 카즈미어가 빠진 뒤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 대한 전망도 있다. “선발 자원이 넘쳐나는 다저스는 불펜 지원을 채워야 한다. 다저스는 내년 시즌 클레이튼 커쇼와 리치 힐, 알렉스 우드, 류현진, 선발 투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발 진입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로는 워커 블러와 홀리오 우리이스 등을 꼽았다.

이런 전망의 배경에는 마에다의 계약 조건이 있다. 기본 연봉이 300만 달러인 마에다는 개막 로스터 진입과 소화하는 이닝 수 선발 등판 경기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마에다는 올 시즌 기본 연봉 300만 달러에 25차례 선발 등판으로 350만 달러, 134%이닝 소화로 125만 달러 등 49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챙겼다.

야구스포츠는 “하퍼 등 FA 영입을 위해 선수단 연봉 총액 줄이기에 나선 구단이 마에다에게 줄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해 불펜 투수로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에다는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불펜 투수로 좋은 활약을 선보인 바 있다.

류현진의 선발 로테이션 합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



니퍼트·해커·밴헤켄 에이스 투수들, KBO리그 떠나나

한시대를 풍미한 에이스 투수들이 KBO리그를 떠날 위기에 처했다.

단스턴 니퍼트(36)가 없는 두산 베어스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현실이 됐다. 니퍼트는 두산에서 7년을 뛰면서 94승을 올린 투수다. 2016년 무려 22승을 때려먹어 커리어하이 시즌을 보냈다. 203cm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속 150km대의 강속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앞세워 한국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다. 두산의 2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니퍼트의 올해 성적은 다소 부진했다. 14승8패 평균자책점 4.06을 기록했다. 포스트시즌에서도 가을 사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두산은 니퍼트와 재계약을 포기했다. 니퍼트는 여전히 150km대 강속구를 뿌리고, 10승도 가능한 투수다. 그러나 프로 구단은 냉정했다. 두산은 니퍼트의 높은 몸값,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나이를 감안해 재계약을 포기했다. 두산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약한 조시 린드블럼을 데려와 니퍼트의 빈자리를 메웠다.

다른 구단의 시각도 비슷했다. 두산과 계약 불발로 니퍼트의 몸값(올해 210만 달러)이 크게 떨어졌다고 알려졌지만, 아직 그에 걸 러브콜을 보내는 구단은 없다. 안전한 투자 대신 젊고 가능성이 큰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NC 에이스 에릭 해커(34)도 정든 한국 무대를 떠날지도 모른다.

해커는 5년간 한국에서 뛰었다. 최근 3년간 44승을 거두는 등 통산 86승(34패)에 평균자책점 3.52를 기록한 투수다.

해커는 국내 무대에 첫선을 보일 때만 해도 강속구 투수였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기교와 투수로 변신했다. 컷백스트로 타이밍을 빼앗는 투구는 일품이다. 내내에도 풀타입으로 땀땀 10승 이상은 충분하다. 경쟁력은 아직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NC는 해커의 보류권을 풀었다. 젊고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투수를 뽑기로 결정하고 유망주를 데려왔다.

넥센 히어로즈에서 6시즌이나 뛴 에릭 밴헤켄(38)도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했다.

밴헤켄은 2014년 20승을 거두는 등 6년간 73승42패 평균자책점 3.56의 좋은 성적을 남겼다. 올해는 8승에 그쳤다.

아직까지 밴헤켄에게 기회를 주는 구단은 없다. 확연하게 떨어진 구위,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마흔이 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느 구단 관계자는 “좋은 선수들이 KBO리그를 눈여겨보고 있다. KBO리그에서 성공하면 큰 돈을 만질 수도 있고 일본, 미국에서도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수준 이하의 선수들이 안전한 투자 대신 젊고 가능성이 큰 선수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NC 에이스 에릭 해커(34)도 정든 한국 무대를 떠날지도 모른다.

김주성, 전설이 된다...시즌 후 은퇴 “즐거운 선수생활에 만족”

16시즌간 DB에서만 뛴 프랜차이즈 스타...리그 최초 블록아웃 1000개 돌파



프로농구 원주 DB의 '십장' 김주성(38·205cm)이 2017~2018시즌을 마친 후 정든 코트를 떠난다. DB는 18일 “김주성이 올 시즌을 마친 뒤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내년 1월부터 김주성의 은퇴 시즌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 동아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200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원주 TG삼보(현 DB) 지명을 받은 김주성은 올 시즌까지 16시즌 동안 DB에서만 뛴 프랜차이즈 스타다. 16시즌 동안 711경기에 출전해 평균 14.2득점 6.1리바운드 1.4블록아웃을 기록했다.

통산 1만24득점을 기록 중인 김주성은 통산 득점 부문에서 서장훈(은퇴·1만3231점)에 이어 2위에 올라있다. 통산 436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해 이 부문에서도 서장훈(5236개)에 이어 역대 2위다.

통산 블록아웃 부문에서는 1028개로 역대 1위다. 프로농구에서 통산 블록아웃 1000개를 돌파한 것은 김주성 뿐이다.

김주성은 신인이던 2002~2003시즌 TG삼보를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이끌었다. 2004~2005시즌과 2007~2008시즌 DB 우승의 중심에도 김주성이 있었다. 2002~2003시즌 신인왕을 차지한 김주성은 2003~2004시즌, 2007~2008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었다. 2004~2005시즌과 2007~2008시즌에는 챔피언결정전 MVP까지 품에 안았다. 특히 2007~2008시즌에는 올스타전 MVP까지 쓸어담으면서 역대 최초로 MVP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DB 골밑의 기둥으로 활약한 김주성은 최근에는 3점슛을 던지는 역할에도 그쳤다. 하지만 신 감독은 김주성에게 포스트 플레이는 물론 다리를 활용한 공격 연계, 뒷공간 침투 등 다양한 임무를 맡기며 잠재력을 끌어냈다.

김주성은 “오랜만에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 조직력이 좋았고 내가 살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줬다. 자신감도 심어줬다. 그래서 (슈틸리케) 전 감독님 때와는 달리 좋은 경기를 한 것 같다”고 돌아봤다. “예전처럼 후안 늦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K리그처럼 (처음부터) 같이 경기를

12분54초로 많이 즐겼지만 영양가가 있는 3점슛을 터뜨리며 DB의 역전극에 큰 힘을 더하고 있다.

김주성은 “선수 생활에 대한 많은 미련과 아쉬움은 있지만 한 팀에서 많은 것을 이루면서 즐거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1년을 행복한 농구를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구단과 감독님에게 감사한다. 마지막 시즌까지 후배들의 성장을 도우며 즐거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팀 동료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고맙고 대견스럽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김주성은 “남은 시즌 동안 존경하는 부모님과 가족, 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DB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니폼 왼쪽 상단에 김주성의 이름과 배번 32번을 포기하고 홈 경기장 코트에는 3점라인 안쪽에 숫자 ‘32’를 새겨놓고 경기를 치른다.

선수 생활 동안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해 온 김주성은 나눔의 은퇴 부어도 한다. 32개 한정판으로 제작된 기념 유니폼을 원정 팀별 최종전에서 상대팀에게 전달하고 유니폼 추첨 팬 응모 행사로 마련한 수익금을 대한장애인농구협회에 기부한다.

김신욱 “오랜만에 대표팀서 활약, 감독님 덕분”

다양한 임무 맡기며 잠재력 끌어내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을 통해 존재감을 한껏 뽐낸 장신(197.5cm) 공격수 김신욱(29·전북)이 자신을 믿고 기용한 신태용(47) 감독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17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신욱은 “동아시아컵에서 좋은 경기를 한 것은 신태용 감독님과 선수들 도움 덕분”이라면서 “감독님이 나를 좋은 모습으로 살려줬다”고 인사했다.

김신욱은 이번 대회에서 3골을 넣었다. 특히 우승컵의 향방을 가른 16일 한일전에서는 멀티골을 넣어 4-1 대승을 이끌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 시절의 김신욱은 대표팀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경기가 잘 안 풀리거나 지고 있을 때 주로 투입됐다. 큰 키를 활용한 긴 패스를 머리로 떨어뜨리는 역할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신 감독은 김신욱에게 포스트 플레이는 물론 다리를 활용한 공격 연계, 뒷공간 침투 등 다양한 임무를 맡기며 잠재력을 끌어냈다.

김신욱은 “오랜만에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 조직력이 좋았고 내가 살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들어줬다. 자신감도 심어줬다. 그래서 (슈틸리케) 전 감독님 때와는 달리 좋은 경기를 한 것 같다”고 돌아봤다. “예전처럼 후안 늦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K리그처럼 (처음부터) 같이 경기를

했다. 다양하고 유기적인 플레이를 했기에 나를 막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

대표팀만 오면 본인도 모르게 위축됐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먹게 된 것이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수확이다. 김신욱은 “해당을 활용한 조커 역할이 주어질 때 (동아시아컵에서 보였던 연계) 함께 하면 더 위협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전에서 보여준 염기훈(수원)의 ‘산책 세레머니’도 언급했다. “한일전을 앞두고 세레머니를 준비할 여유는 없었다. 기훈 형이 즉석에서 한 것 같다”며 웃었다.

한편 절정의 기량으로 대회 MVP에 오른 이재성(25·전북)은 “올해 상을 많이 받았다. 잊지 못할 것 같다”면서 “감독님, 코치님,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공을 돌렸다.

한일전 승리를 놓고는 “한일전의 특수성을 선수들이 잘 알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 오랜 기간 못 이겼다는 것도 알았다”면서 “좋은 결과로 돌아와 환대를 받아 기쁘다.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생기는 것 같다”며 뿌듯해했다.



NC 다이노스, 내부 FA 모두 잡았다

손시현·이종욱·지석훈

NC 다이노스가 팀내 자유계약선수(FA)인 손시현(37), 이종욱(37), 지석훈(33)과 FA 계약을 체결했다. NC는 내부 FA 트리오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시현은 계약금 5억원과 연봉 5억원 등 2년 총액 15억원에 계약했다. 이종욱은 계약금 3억원과 연봉 2억원 등 총액 5억원에 1년 더 합계 7억원 받았다. 지석훈은 계약금 3억원, 연봉 1억5000만원 등 2년 총액 6억원에 사인했다.

손시현은 올해 124경기에 출전해 타율 0.350 5홈런 122안타 45타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3할 타율을 달성하는 등 늦은 나이에 전성기 못 지 않은 활약을 펼쳤다. 꾸준한 성적과 함께 슬슬수렴하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후배들을 이끌었다.

손시현은 “가치를 인정해준 구단에 감사한다. 미래가 밝은 팀의 최고참으로서 좋은 전통을 후배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모든 선수들이 팀을 위해 뛰고 싶어 하도록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종욱은 107경기에서 나서 타율 0.308 5홈런 98안타 34타점 9도루로 베테랑다운 노련함과 경험으로 존재감을 발휘했다. 내년 시즌 이종욱은 손시현과 함께 팀내 최고선배가 된다.

이종욱은 “내년 시즌에 최고참으로서 선수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석훈은 121경기 타율 0.239 6홈런 64안타 24타점으로 성적은 다소 기대에 못 미쳤지만 1루를 제외한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는 등 든든한 백업으로 역할을 했다.